

서란시조선족실험소학교

변화 속에서 꽃피우는 교육의 미래



교수연구토론중인 교직원들

새롭게 단장한 학교, 새로운 시작

서란시 신시가지 학부대로에 위치한 서란시조선족실험소학교가 새롭게 정문을 열어 편의성과 품격을 한층 높였다. 과거의 비좁은 골목길과는 달리 넓고 평탄한 길이 학교를 찾는 이들을 반긴다. 오랜만에 학교를 방문한 기자는 눈앞의 변화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정문에서 한명송 부교장의 따뜻한 환영을 받으며 교정에 들어서자 오랜 세월을 지켜온 고목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한때 모래밭이었던 학교 운동장은 이제 막 초록빛 인조잔디로 변모하는 중이었다.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교육의 통합

한명송 부교장은 "현재 서란시조선족중학교가 우리 소학교 건물을 함께 사용하며 유치원과 소학교, 중학교가

통합된 교육 시스템을 이루었다."고 설명했다.

3층과 4층에 위치한 실험소학교의 복도와 계단 벽면은 학생들의 창의적인 작품으로 가득했다. 특히 점심시간의 모습이 색다르게 다가왔다. 책상에 엮드려 자던 기존의 방식 대신 특수 제작된 '침대의자'를 활용해 편안한 낮잠을 즐기는 학생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학생 중심의 혁신, 교육의 질 향상

서란시조선족실험소학교 리지성 교장은 "점심시간에 학생들이 불편하게 책상에 엮드려 자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침대의자를 도입했다."며 "학생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란시 조선족 인구 감소로 학생수가 줄어드는 현실 속에서도 학교는 적극적으로 변화를 모색했다.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신입생들에게

급식비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하며 학부모들의 신뢰를 얻었다. 특히 최근에는 타민족 학부모들 사이에서 조선족 교육의 우수성이 입소문을 타면서 타민족 학생들의 류입으로 인해 학생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민족 특색을 살린 교육 프로그램

학교는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동시에 조선족 전통 음식 만들기, 복식 체험, 민속놀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민족 문화 계승에 힘쓰고 있다. 업그레이드를 거친 학교의 조선족 민속전시관이 금년 상반기 안에 개관될 예정이다.

또한 한족학교와의 교류를 통해 학생들이 그림자놀이, 전지 등 중국 전통문화를 접할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역사 속에서 빛나는 교육의 요람

1936년 설립된 서란시조선족실험소학교는 시대의 변화를 겪으며 12차례나 이름을 바꿨다. 2017년 평안진 조선족중심학교와 통합한 후 현재의 학교명을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는 서란시 유일한 조선족소학교로 자리매김했다.

리지성 교장은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매일 고민한다."며 밝은 미래를 향한 의지를 드러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서란시조선족실험소학교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 차영국기자



서란시조선족실험소학교 정문

길림성조선족로인협회친목회 설립 15주년 성악시합 7월 길림시서



길림성조선족로인협회친목회 회장단회의 현장

4월 18일, 길림성조선족로인협회 친목회 회장단회의가 길림시에서 개최되었다. 연변을 제외한 장춘, 사평, 통화, 공주령, 장백, 류하 등 산재 지역 조선족로인협회 회장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길림성조선족로인협회 친목회 전홍수 상무부회장이 리장수 회장의 연임 결정을 발표했다.

리장수 회장은 "친목회 삼일리사회와 회원 여러분의 신뢰에 감사드리며 더욱 활발한 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올해 길림성조선족로인협회친목회 설립 15주년을 맞아 '익수당배 중로년 성악시합'을 7월경에 길림시에서 개최할 계획을 발표하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중로년 성악시합은 독창,

이중창, 소합창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되며 각 지역 협회들은 각각 2~3개 종목을 추천하게 된다. 공평한 경쟁을 위해 심사위원회를 운영하며 수상자들에게 상금과 상패를 수여한다.

아울러 올해 길림성조선족로인협회 친목회는 지속적인 교류 활성화를 위해 화전, 휘남, 사평, 공주령 등 지역 순회 방문과 더불어 성의 지역 룽녕성과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길림성조선족로인협회친목회 설립 15주년 성악시합의 원만한 개최를 위한 실무 방안을 논의하면서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행사를 마무리했다.

/ 차영국기자



길림시박물관

'매달 보물' 전시, 고대인의 '생활' 엿보다

최근, 길림시박물관 1관 1층 로비에 위치한 '매달 보물' 전시구역의 '보물'들이 새롭게 교체되었다.

이달에 전시된 8점의 소장 유물은 모두 고대인의 생활용품으로 송조의 갈색유 우산형 등(酱釉伞形灯), 룡천요 청유 고족배(龙泉窑青釉高足杯), 백유 지구 절견병(白釉侈口折肩瓶), 흑유항(黑釉罐), 균요 청유 대접(钧窑青釉碗), 원조의 자주요 화조문 자기베개(磁州窑花草纹瓷枕), 청조의 차요말유석류尊(茶叶末釉石榴尊)과 청조 동지 모방 건릉제 오복봉수반(同治仿乾隆

款五福捧寿盘) 등이 포함된다.

길림시박물관은 위챗 공식계정에 이 귀중한 유물들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소개하는 글을 동시에 게시하여 관광객들이 고대 생활을 더욱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초, 길림시박물관은 '매달 한 점의 발'을 '매달 보물' 유물 전시 활동으로 업그레이드하여 매달 8~10점의 소장 유물을 교체 전시함으로써 관광객들에게 전통문화의 매력을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고 있다.

/ 송화강넷

5.1 절 기간

길림 북산 묘회 행사장으로 봄나들이 가요

길림 북산 묘회(庙会)는 동북 지역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크며 참여 인원이 많고 영향력이 넓은 묘회로 2011년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올해 북산 묘회는 전시, 판매, 공연, 체험 활동을 결합하여 5.1절 봄나들이의 새로운 장을 열고 휴가철 문화관광 소비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1. 기원의 날

5월 5일, 15일, 25일 3일간 북산 고묘군에 기원(祈福) 전용 구역(소원나무 등)이 마련되며 북산공원에서는 '어둠 기원'(鱼灯祈福) 야간 관광 프로그램(19:00-21:00)이

진행된다. 방문객들은 해당 구역에서 기원 활동을 할 수 있다.

2. 북산 대장터

대장터에는 생선거리구역, 문화관광시장, 특색음식구역 등 다양한 기능의 공간이 마련되며 길림 특색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것은 물론 다양한 동북 특산품도 만날 수 있다. 민속상업 대장터는 4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운영된다.

3. 문화 공연

5월 1일부터 5일까지 매일 저녁 18:00-19:30, 다양한 주제의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진다.

/ 차영국기자

길림경제기술개발구

강소 농약생산업체 유치, 120개 일자리 창출

1단계 설비 설치 막바지, 상반기 가동 예정

상풍화학길림유한회사가 년간 생산량 6만 3,800톤 규모의 농약 생산 프로젝트 1단계 설비 설치를 완료, 가동을 앞두고 있다. 가동후 이후, 토양, 작물 특성에 맞춘 맞춤형 식물생장조절제 생산을 하게 될 전망이다.

29건 특허 보유, 원료 70% 현지 조달로 경쟁력 확보

상풍회사는 길림경제기술개발구에서 유치한 기업으로 과거 강소에서 제조제, 성장조절제 등 농약 생산에 주력해온 업체이다. 국가급 특허 29건을 보유한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2021년 길림으로 본사 이전을 결정, 총 13만평방미터 부지에 년산 2만 8,000톤(1단계)의 생산조절제와 년산 3만 5,800톤(2단계)의 제조제 생산라인을 구축중이다.

회사의 서강 총경리는 "면화, 고무나무, 과수 등 대상 작물별로 내약성 문제까지 고려한 맞춤형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며 "특히 길림

화학 등 현지 기업으로부터 원료의 70%를 조달받아 원가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년 매출 3.5억원 기대, 120개 일자리 창출

1단계 생산 가동 시 년 매출 1억 5,000만원, 2단계 완공 시 매출이 3억 5,000만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 회사는 생산에서부터 원료 약제 개발, 심층가공까지 완결형 산업망을 구축함으로써 국내 최대 복합 제형 농약생산업체로 도약할 계획이다.

길림경제기술개발구는 '기업 심복인'(企业知心人) 제도를 통해 길림시 인력사회보장부문과 연계해 120여개의 전문직 일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기술인력 채용도 지원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 공략

현재 상풍회사의 제품은 90% 이상이 수출되며 향후 맞춤형 성장조절제를 통한 시장 점유율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 강성일보

풍만구, 지역 자원 활용해 버섯 양식 특색산업 육성



최근 몇년간 길림시 풍만구는 지역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특색산업 발전을 모색하고 식용버섯 양식을 중점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양식 구조 최적화, 기술 향상, 브랜드 강화 등을 통해 버섯의 생산량과 품질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사진은 리방농업전문합작사의 일꾼들이 버섯을 수확, 운반하고 있는 모습이다.

/ 길림일보

작은 자동차 미용장식 공방을 '광장'으로

길림시 풍만구 향동화원아파트단지의 동쪽편에는 자동차장식업인 옹풍자동차미용장식공방이 있다.

"점포 이름은 거창하지만 아직 규모는 작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름값을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근 향동화원아파트단지 동쪽 상가에서 만난 조효초(32세)는 투박하지만 진정성 있는 미소로 기자를 맞았다.

시골 청년의 도시 정착

공주령시 대유수진 농촌마을 출신인 조효초는 18세에 길림시에 진출, 친척이 운영하는 자동차장식점에서

견습생 생활을 시작했다. 자동차 필름 코팅, 보안장치 설치 등을 배우며 기술을 연마했다. 2019년 원래 근무처가 사업 전환을 선언하자 배운 기술을 접기 아쉽다는 생각에 '옹풍자동차미용장식' 간판을 이어받았다.

행정 지원이 키운 작은 기업의 초기 창업 난관은 행정절차였다. "사업자 등록부터 세무 신고까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허둥댔죠." 풍만구세무국 왕과장의 도움으로 전환점을 맞았다. 왕과장은 직접 창구를 안내하고 세무기기 사용법까지 손수 가르치며 2주 만에 모든 인허가를 완료시켰다. "언제든

전화하라'는 행정기관 사업일꾼들의 말이 마음에 든듯했어."라고 조효초는 회고했다.

고객 신뢰가 만든 사업 확장

창업 5년 차인 지금, 옹풍자동차미용장식공방은 빠른 수리, 복구, 차체함몰 복원, 도색 복원 등 고급 서비스를 입소문을 탔다.

특히 2024년 12월 산동성 관광객의 긴급 출동 사례는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다. "차 수리후 '길림에 다시 오세요'라고만 했는데 손님이 전국 차주 카페에 감동 후기를 올려주셨죠." 조효초는 지역 홍보까지 겸하는 씨비스

철학을 강조했다.

농촌 청년의 꿈을 키우는 공간

현재 점포에는 농촌 출신 직원 2명이 기술을 배우며 일하고 있다. 조효초는 "예전의 나처럼 이들이 기술을 익혀 독립할 때까지 최대 6명을 고용할 계획"이라며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세금 감면이 큰 힘이 됐어요. 이 도시가 저에게 온기를 주었고 이제는 내가 돌려줄 차례입니다. 작은 공방이 진정한 '자동차 문화광장'이 되는 그날까지 달려겠습니다."고 말했다.

/ 송화강넷